이베로아메리카 제5집(2003년)

라틴아메리카 국경문제에 관한 소고

임 상 래*

Ⅰ. 서 론

인접한 국가간의 지리적-물리적-자연적인 관계를 일차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국경이다. 국경이란 말 그대로 '국가간의 경계'를 의미한다. 영어로는 boundary, frontier, border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는데 '바운더리'는 지리적 용어로서 國界 또는 市界 등 경계선을 정의하며 '보더'는 직접적으로 인접한 다른 국가와의 경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보더'를 이루는 한 나라의 일부분을 '프론티어'라고 한다.(김홍철: 23-25) 그러나 이러한 개념 정의들은 맥락에 따라 그 의미를 달리할 수 도 있다. 예를 들어, 프론티어는 어떤 경우에는 미개발지역의 동의어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는 이 말의 어원적 형성과정을 살펴보면 이해가 된다.[1] 프론티어는 미국의 서부 개척 시기에 원주민들을 몰아(밀어)내고 새로 얻게 된 '개척지'를 의미했고 따라서 위험하고 야만스런 일종의 변경(邊境)이었다.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국경을 지칭할 때는 일반적으로 '프론

* 부산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부교수

1) 미국 정부의 공식 정의로는 1평방 마일당 인구 2인 이상의 지역과 그 이하의 지역과의 경계를 잇는 선이라 규정되어 있으며, 아직 충분히 문명화되어 있지 않은 지역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 있다. 초기 미국은 동부 13주에서 서쪽으로 확대되는 형태로 발전해 왔는데, 따라서 이 프런티어도 점점 서쪽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다가 19세기 중엽 미국이 태평양연안을 획득하고, 캘리포니아에서 금광이 발견되어 골드 러시가 일어나자, 태평양연안에서 동진(東進)하는 프런티어도 생겨 19세기 말에 동·서 양쪽으로부터의 프런티어가 합쳐져 1890년 연방정부 국세조사국(國勢調査局)은 프런티어가 소멸하였다고 발표하였다.(Britannica, 프론티어)

떼라'(frontera)라는 말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국경 형성의 가장 초기적이고 일반적인 형태는 자연적 분계선이다. 자연적 국경은 해양, 산맥, 하천, 호소, 사막 등 지형적 요소를 이용한 국경이다. 이 국경은 일반적으로 명확하고 변동이 적으며 격리성이 뛰어나다. 이중 해양국경은 교류성과 격리성의 두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국경으로 가장 안정적이다. 산맥은 격리성은 높고 교류성은 떨어지고 하천은 때론 수량의 변화로 국경분쟁을 야기하기도 한다. 비자연적 국경, 즉 인위적 국경은 문화적 차이를 근거로 형성되기도 한다. 이 유형의 국경으로는 종교적 차이에 근거한 인도와 파키스탄간의 국경이 있다. 다음으로는 군사적 균형을 위해 만들어진 국경으로 이스라엘과 아랍권, 그리고 남북한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역사적-정치적 고려에 의해 만들어지는 국경을 들 수 있다. 유럽열강에 의해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국경이 획정된 예를 들 수 있다.

한편 국경문제에 대한 선도적 연구를 수행한 M. 푸셔는 국경선 획정의 절차-과정을 중심으로 합의에서 충돌에 이르는 정도에 따라 국경유형을 대별하였다. 19세기 국가간의 외교교섭과 협정체결을 통해 형성된 국경, 강제적 국경이지만 무력의 개입없이 형성된 정치국경, 국가간 병력의 대치상황하에서 타협과 협정을 통해 정해진 국경, 전쟁의 가능성을 안고 있는 국경, 제3국이나 국제기구에 의해 중재조정되는 국경 등으로 나누었다.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전쟁 발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 경우는 에콰도르와 페루간의 국경분쟁을 들 수 있으며 제3 자의 개입에 의해 획정된 국경은 1878년 헤이그의 국제사법재판소가 획정한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 간 필코마요(Philcomayo) 하천 국경과 1984년 교황청의 중재로 해결된 칠레와 아르헨티나간 해양국경선 등 이다.(김홍철: 264-266)

가장 일반적인 국경은 양국간의 국경이나 여러 나라가 일정지역을 공동의 국경으로 접하는 다중국경도 많은데 이 경우 국경문제가 생기면 국가간 관계는 더욱 복잡해진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세 나라가 국경을

공유하는 곳은 13 개 지역이나 된다. 이중에서 특히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삼국이 만나는 이과수 지역은 국경지역의 경제적 규모나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문화적 중요성 등으로 매우 독특하고 고유한 성격을 갖는 지역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과수 삼중국경 지역의 상호관계와 세 도시간의 공동체적 성격을 통해 라틴아메리카 국경이 갖는 현단계적 의미를 구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라틴아메리카 국가 또는 지역별 국경 문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삼국의 국경정책과 세 도시간의 이동과 교류의 양태를 분석함으로서 남미남부지역에서 국경이 갖는 의의를 조망하고 이해할 것이다.

Ⅱ 라틴아메리카 국경 소사(小史)

처음 라틴아메리카의 국경은 유럽의 경계를 이루는 부분으로 인식되었다. 즉 라틴아메리카 전체를 서유럽(중심)의 광대한 경계(주변)로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쿠스코나 테노츠틀란은 잉카와 아즈텍의 중심이었지 결코 변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한 시각은 다분히 유럽중심주의적 입장의 산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틴아메리카 국경의 역사는 식민본국이었던 스페인과 포루투갈간의 관계에서 비롯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1494년 양국간엔 아메리카의 영유권을 설정한 토르데시야스(Tordesillas)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에 앞서 1493년에는 로마 교황 알렉산더 6세의 교서에 의해 신대륙에서의 양국의 영유권을 서경 38도로 설정한 바 있었다. 따라서 토르데시야스 조약에서는 전년도의 설정을 변경하여 양국의 국경을 서경 46도 37분선으로 하고 그 동쪽은 포루투갈이 서쪽은 스페인이 차지하도록 정하였다. 이로서 양국은 해당지역에서 탐험과 정복의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하게 되었다. 이후 1750년에는 양국간에 마드리드 조약이 체결되어 브라질의 국경선이 확정되었

고 1777년에는 다시 산 일데폰소(San Ildefonso) 조약이 맺어져 양국간 영토 분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조약으로 스페인은 사크라멘토(Sacramento) 지역을 획득하였고 포르투갈은 리우 그란데 데 술 지역을 양도받았다.(김홍철: 250-251)

그러나 170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식민지까지를 포함하는 '대' 스페인의 국경은 다른 유럽 국가들의 점증하는 영향력으로 혼란스러워졌다. 1783년 영국이 지금의 벨리즈를 점령하였고 불란서는 아이티(1795)와 루이지애나(1800)를 획득하였다. 영국은 트리니다드 섬(1797)을 얻었다. 19세기 들어 아이티(1804)를 선두로 1820년대 중남미 거의 모든 나라들이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고 새로운 국경선을 획정하였다. 1898년 미서전쟁에서 스페인이 패하고 쿠바, 푸에르토리코, 괌, 필리핀이 독립하거나 미국령이 되었고 이로서 스페인은 아메리카에서 모든 식민지를 잃게 되었고 스페인의 머나먼 극서국경은 사라지게 되었다. 1903년 운하문제가 계기가 되어 파나마가 콜롬비아로부터 독립하였고 이후 2차대전이 종전되고 카리브 소국들이 독립하여 라틴아메리카에는 더 많은 국경이 생겼고 이러한 국경 양태는 이후 소소한 변동들이 있긴 했지만 아직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중남미의 국경은 세계적 차원에서 볼 때 국가간 전면전으로 발전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 비교적 안정적인 형태로 존립해왔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중남미에서는 국가간 충돌을 야기할 정도의 치열한 이데올로기적 대립도 거의 없었다. 비록 쿠바의 사회주의 정권이나 몇 몇 나라들의 쿠데타들이 있었지만 국가간 무력 충돌로 확대되는 일은 없었다. 게다가 중남미는 하천국경이 지배적인 국경형태를 있는데 이 형태의 국경은 가장 자연스로운 것이며 따라서 라틴아메리카에서 직선국경, 이른바 인공적 국경은 많지 않다. 이것 역시 라틴아메리카의 국경형성이 비교적 평화적인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고 순조롭게 국경을 획정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요인은 중남미 각국이 스페인의 식민통치에서 비롯된 언어, 역사, 문화,

전통 등의 일체감을 어느 정도 공유하기때문이다. 여기에다 지리적 험난함, 부족한 인구와 광대한 영토, 경제-정치적 통합의 어려움 등으로 국가간 국경은 스페인 식민통치에 기초해 설정된 경계에서 크게 벗어날 이유(여유)가 없었고 따라서 이를 행정구역으로 그냥 받아들이는데 큰 문제가 없었던 것이다. 또 M. 푸셔가 지적한 바처럼 라틴아메리카의 국경문제는 (아프리카 보다)덜 복잡하다. 왜냐면 독립의 역사도 더 길고, 그 사이 각국은 국경 조정의 노하우를 많이 가지게 되었고 또 국경 안정의 필요성을 공감하였기 때문이다.(김홍철: 261)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경문제를 둘러싼 라틴아메리카 국가간 긴장이나 대립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최초의 국경선이 토르데시야스 조약으로 정해진 이후 다른 국가들보다 브라질은 더 적극적인 국경 확대전략을 추진하여 오늘날의 국경을 갖게 되었다. 토르데시야스 조약이후 스페인은 조약상의 사법적 법률문제로서 국경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브라질은 선점권을 내세우는 '현상유지' 원칙(점유물 보유의 원칙)을 잘 활용하여 현실적인 대응을 하였다. 그래서 때론 무력에 의해 국경분쟁이 종결되기도 했다. 파라과이-브라질-아르헨-우루과이간에 리버 플레이트 수계를 둘러싼 전쟁(1865-1870)이 있었고 1900년대 초 브라질과 볼리비아사이에 고무의 주생산지인 아크레(Acre) 지역을 둘러싼 분쟁도 있었다.(김홍철: 258) 이처럼 브라질은 국경문제로 주변국과 대립하기도 했으나 비교적 순탄한 팽창정책을 수행하여 오늘날 토르데시야스 조약의 경계보다 훨씬 넓어진 영토를 보유하게 되었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자연자원의 발견 내지는 매장의 확인도 분쟁의 요인이 되었다. 1879년 있었던 칠레-페루-볼리비아간 태평양 전쟁에서 칠레가 승리하여 칠레는 자국의 국경을 초석의 주 산지인 안토파가스타까지 밀어 올릴 수 있었다. 다이아몬드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에 대한 베네수엘라-가이아나간의 대립과 유전지역인 차코 사막에 대한 볼리비아와 파라과이간의 분쟁 등도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하천

역시 국경분쟁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미국-멕시코간의 리오 그란데 강처럼 계절에 따른 하상과 수로의 변화로 인해 국경 분쟁이 생기기도 하고 수로나 수력발전의 이용 정도에 따라 문제도 생기기도 한다. 미국이 콜로라도 강을 관개사업하여 멕시코 국경지역의 농업에 영향을 준 경우나 칠레에서 볼리비아로 흐르는 라우카강의 관개사업을 둘러싸고 생긴 분쟁이나 브라질이 파라나강 상류에 수력발전 때문에 아르헨티나가 반발한 경우 등 그 예는 많다.(김홍철: 259-260)

가장 긴 국경선을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은 나라들과 경계하고 있는 브라질은 라틴아메리카의 국경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나라이다. 브라질은 중남미에서 가장 긴 17.000km의 국경을 10개국에 걸쳐 보유하고 있다. 이는 라틴아메리카 총 국경 길이의 거의 40%에 달하는 것이다. 앞에서 본 것처럼 브라질은 로마제국의 현상유지원칙에 의거하여 주변국과의 국경문제를 해결해왔다. 칠레와 아르헨티나가 세계에서 2번째로 긴 국경을 가지고 있는데 길이는 약 3.000마일(4.800km)이며 1881년 부에노스아이레스 국경조약에 의해 최종 획종되었다. 라틴아메리카에는 삼국이상이 교차하는 다중국경이 많다. 삼국이 국경을 이루는 3중국경은 모두 13개이며 4중국경은 브라질-콜롬비아-에콰도르-페루간에 있다.(김홍철: 269)

라틴아메리카 국경분쟁의 '클래식'은 페루와 에콰도르간의 일이다. 2002년 페루대법원은 1998년 양국간 국경평화협정에서 합의된 티웬사(Tiwinza) 지역 1km2를 에콰도르에 양도한 것을 무효화시켜 달라는 페루 정부의 제청을 기각했다. 1999년에는 후지모리 정부의 국경평화조약은 위헌이라는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페루와 에콰도르는 반세기 이상 국경분쟁을 겪고 있는데 1998년 10월 26일에 1942년 합의된 리오데자네이로 협정에 따라 양국 국경을 최종 확정함으로서 국경 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에 따라 페루는 이 1km2 지역을 1995년 국경 전쟁으로 사상한 에콰도르 군인을 추모하는 의미로 주권없이 소유권만 인정하면서 양도하기도 합의했었다.(CNN 2002/8/27)

남미 지역의 국경문제가 전반적으로 일찍 마무리된 것과는 다르게 중미지역의 국경 분쟁 사례들은 더 동시대적이다. '축구전쟁'으로 더 잘 알려진 1969년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 사이에 일어난 전쟁도 국경분쟁의 성격을 갖는다. 정치-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많은 엘살바도르인들이 온두라스로 불법월경하여 국경지역에 정착하였고 국경지역과 이들에 대한 온두라스 정부의 차별적 정책과 국경지역 영유권 분쟁으로 양국민의 감정이 격앙되어 양국 팀의 축구경기를 계기로 전쟁이 발발하였다. 양국의 국경 분쟁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2002년 엘살바도르는 1992년 체결했던 온두라스와의 10년 유효 국경 협정을 재심해 줄 것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신청했다. 문제가 되는 지역은 국경지역중 태평양의 폰세카(Fonseca) 만의 고아스코란(Goascoran) 강 어귀지역이다. 양국의 국경선은 총 377km 인데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이 난후에도 국경 이정표가 설치문제로 양국이 서로를 비방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국간 국경선확정 작업은 약 150만 달러가 소요되고 1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992년 국제사법재판소는 이 지역의 69%는 온두라스가, 31%는 엘살도르가 주권을 영유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으나 엘살바도르측은 고아스코란 강 어귀 70km2에 대한 영유권을 계속하여 주장해 왔다. 이 국경분쟁은 독립때부터 계속되어왔고 1969년 양국은 6.000명의 사망자를 낸 전쟁을 벌이기도 했다.(CNN 2002/9/10) 이외에도 과테말라와 벨리스 국경도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는 곳이다. 과테말라는 벨리스 남부 지역과 근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바 현재 미주기구의 중재로 협상중인데 1999년 이래 양국군의 충돌로 6명이 목숨을 잃었다. 현재 양국은 일단 지금의 국경선은 협상을 위한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CNN 2002/9/5, 17) 최근 코스타리카와 니카라과는 산후안 강 통행을 둘러싼 국경분쟁을 겪었다. 양국은 1988년 이후 코스타리카 경찰의 무장 항해를 놓고 이견을 보여왔는데 1858년 국경조약에 따라 니카라과는 산 후안 강에 대한 주권을 갖고 코스타리카는 자유항행권을 갖는 것으로 합의된 바 있었다. 니카라과의 알레만 정부는 코스타리카

경찰의 하천 무장 경비를 금지하기도 했으나 불법이민이 증가하자 코스타리카 이민경찰이 무장 항행을 강화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CNN2002/8/26, 2002/9/9)

콜롬비아의 내전과 그로 인한 정정 불안은 이 지역 국경분쟁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 에콰도르는 콜롬비아 내전이 국경으로 확산되어 양국 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때 에콰도르 정부는 국경수비를 강화하고 루미차카(Rumichaca) 교량 야간통행을 금지시켜 국경을 일시 폐쇄하기도 하였다. 양국은 빈번하게 국경경비에 대한 회담을 갖는데 총 640 km에 달하는 국경은 콜롬비아 반군, 우익군사단체, 마약집단이 활동하는 주 무대이며 이들은 물자를 공급받거나 휴식을 취하기 위해 에콰도르 국경을 넘나들기도 하며 약탈과 납치를 저지르기도 한다.(CNN 2002/8/17, 2002/9/4) 2002년 9월에는 베네주엘라 정부가 콜럼비아와의 북서국경지역인 소코아보(Socoavo), 카투툼보(Catutumbo)의 경비를 강화한 바 있다.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양국간의 국경분쟁지역이기도 하며 현재는 마약 유통의 주 경로로 알려진 곳이다.(CNN 2002/5/11) 파나마 역시 2002년 2월 콜럼비아의 내전이 격화되자 국경경비 강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국경문제가 골칫거리인 곳이 또 있다. 멕시코는 북과 남으로 국경을 가지고 있는데 북쪽의 국경에선 수동적이라면 남쪽의 국경에선 능동적이다. 멕시코와 과테말라 국경은 과테말라를 포함한 중미 지역에서 멕시코 또는 미국으로 밀입국하려는 자들이 집중되는 지역이다. 이들은 국경경비가 강화됨에 따라 국경수비대의 손이 미치지 않는 더 험한 곳으로 밀입국을 시도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연간 수 백명이 강, 정글, 산에서 목숨을 잃는다. 또 밀입국자들에 대한 멕시코 군경의 인권유린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국경경비를 완화할 것, 군경의 부정부패를 척결할 것, 국경지역 범죄조직을 소탕할 것을 멕시코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CNN 2002/9/2, 9/5)

오늘날 라틴아메리카의 국경에 대한 인식은 그것의 역사적 형성 과정

과 무관하지 않다. 거의 모든 국경은 국가 간 충돌과 분쟁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인간이 거주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도 부족하고 거기에 그 나라의 정치·경제 중심과 멀리 떨어져 있어 가장 저급한 거주 공간의 한 곳으로 간주되어왔다. 근대에 들어서는 국경에 대한 지정학적 이해가 증대되면서 국경은 식민화 계획과 자원-인구의 재배치를 통한 성장-개발 정책의 펼쳐지기도 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구와 경제의 역동적 성장은 물론이고 돈과 서비스의 교환, 도로망을 통한 물리적 연결, 전기·통신의 교차 사용, 자원의 공동이용과 보호 등으로 인해 라틴아메리카의 국경은 이제 단순한 경계선이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Rodríguez Vignoli: 23) 그 대표적인 지역으로 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의 삼중국경을 들 수 있다.

Ⅲ. 삼중 국경의 지리와 자연

이과수 삼국국경은 아르헨티나의 푸에르토 이과수(Puerto Iguazu, 이하 PI), 브라질의 포스 데 이과수(Foz de Iguazu, 이하 FI), 파라과이의 시우닫 델 에스테(Ciudad del Este, 이하 CE)의 세 도시가 삼각을 이루는 곳이다. 브라질의 FI 와 아르헨티나의 PI 간에는 이과수강이 흐르고 있고 유명한 이과수 폭포가 있다. 양국 국경을 형성하고 있는 이과수 폭포는 크고 작은 257 개의 폭포를 이루어져 있으며 폭포와 그 주변 정글은 양국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유네스코의 인류자연유산으로 등록된 곳이다. 주변 정글에는 아열대에서 열대에 이르는 다양한 식물이 무성하고, 많은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과라니어로 '큰 물'을 의미하는 이과수답게 이 지역은 풍부한 수량을 자랑하는 곳이다. 따라서 습기가 많은 아열대기후대에 속하며 연강수량은 1,700㎜를 넘는다. 평균기온은 겨울은 섭씨 15도, 여름은 25도이지만 한 여름에는 40도에 이른다. 이 지역은 기본적으로 밀, 콩, 커피, 벼, 옥수수, 포도, 돼지 등의 농

업 지역이며 최근에는 이과수 폭포를 중심으로 관광업과 CE 의 상업이 발달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국경 지역은 미시오네스(Misiones)주인데 고도는 200-800m 정도이며 대부분 아열대 우림으로 덮여 있고 깊은 협곡과 하천, 낮은 산들이 있다. 폴란드, 우크라이나, 일본, 브라질, 독일 등에서 이민자가 와서 정착하여 여러 인종집단이 어우러져 살고 있으며 마테차, 목재, 카사바(마니옥) 등을 재배하며 목재가공업도 성하다. 이과수 삼국국경의 브라질쪽은 파라나(Parana)주 이다. 주도는 생태도시로 잘 알려진 쿠리찌바이며 17세기 금이 발견되면서 본격적인 식민화가 시작된 곳이다. 북서부는 겨울이 건조하나 다른 지역은 적당량의 비가 내리며 저지대는 여름이 더운 반면 고지대의 여름은 서늘한 편이다. 대부분은 열대우림이 울창하나 일부는 수목이 없는 대초원도 있다. 주민들은 주로 포르투갈계이나 19세기 이후 네덜란드,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독일, 중동, 일본 등에서 이민도 많았다. 주요한 커피 생산지이며 마테 차, 목화, 땅콩, 라미 모시 등 다양한 작물과 과일들이 재배된다. 제재업도 경제적으로 중요하며 최근에는 가축사육이 확대되어 낙농제품과 양모가 많이 생산된다. 파라과이 국경 도시인 CE 는 알토 파라나(Alto Parana)주의 수도이다. 파라과이는 파라과이강을 중심으로 서부와 동부로 양분되는데 알토 파라나주는 동부의 끝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은 비옥한 화산성 토양으로 고지-습윤지역이며 파라과이에서 인구 집중도가 높은 지역이다. 이 지역은 파라나강이 흘러 수자원이 풍부하며 이타이푸 댐이 유명하다. 지하자원은 석탄 생산이 많은 편이며 콩, 마테 차 등이 많이 경작된다.(Britannica/미시오네스/파라나. 미시오네스 주 정부, 이전: 218-219, 239) 파라과이를 양분하며 흘러온 파라나강은 브라질과의 국경을 따라 흐르다가 아르헨티나-브라질 사이를 흘러온 이과수강과 만나 남류한다. 파라나 강은 다시 우루과이 강과 합류하면서 라플라타 강이 되어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를 거쳐 대서양으로 흘러든다.

이과수 폭포 지역은 한때 파라과이의 영토였으나 1864-70년 파라과

이 전쟁(또는 삼국동맹전쟁)에서 파라과이가 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 동맹군에 패하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영토가 되었다.(민만식 외: 262-262) 이과수 폭포는 삼국 국경의 지리-경제적 핵심이다. 폭포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양국에 걸쳐 장 장 3km이며 높이가 약 60m인 '악마의 목구멍(Garganta del Diablo)'을 중심으로 병풍처럼 펼쳐져 있다. 이 지역의 주 수입원이 되고 있는 폭포관광은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모두에서 모두 가능하며 폭포관광을 위해 입국시 정식 Visa가 없어도 된다. 브라질쪽 관광은 도보로 약 3km이며 이과수 폭포의 전체적 전경을 보기에 좋다. 아르헨티나쪽에서는 코스가 훨씬 길며, 폭포의 아래와 위로 다양한 관광코스가 있다. 헬기, 보트, 지프 등으로도 관광할 수 있다. 대부분의 관광 프로그램도 양국의 관광 코스를 함께 합쳐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PI와 FI는 폭포 관광을 공유하고 있는 일종의 '쌍둥이 도시'이다. CE는 이과수 관광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PI와 FI의 관광인구를 포함한 유동인구를 상대로 상업이 번창하여 크게 보아 폭포경제권이라고 할 수 있다.

수자원의 천국답게 이 지역에서 폭포와 함께 지역의 경제와 자연을 대표하는 것은 댐이다. 이과수와 함께 이타이푸 댐은 삼국국경의 성장과 확대를 촉발시켰다. 70년대 시작된 댐 공사로 새로운 거주지가 건설하였고 값싼 동력으로 공장들이 들어서게 되었고 이를 위한 서비스업들이 발전하였다. 우정의 다리에서 파라나(Parana)강 상류 14km 지점에 위치한 이타이푸 댐은 높이 240m, 폭 8km이며 호수의 길이는 200km에 이른다. 세계 최대의 단일 수력발전소로 시설 용량은 1,260만 kw이며 파라과이와 브라질이 각 9개씩 총 18개의 전력 터빈이 있으나 파라과이는 1개 터빈만 사용하고, 8개는 브라질에 임차해주고 연간 156백만불의 로열티를 받고 있다. 30년 전 6만이었던 삼국국경지역의 인구는 현재 유동인구를 포함하여 약 70만으로 급증했다. 75년 댐이 완공되면서 대도시로 모습을 갖춘 CE는 아순시온에서 33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1965년 파라과이와 브라질을 잇는 국경교량 우정의 다리(Puenta de

la Amistad)가 완공되고 1984년 5월 이따이뿌 발전소가 가동되면서부터 급속히 성장하였다.(주 파라과이 한국대사관)

Ⅳ. 이주, 이동, 교류

삼국국경의 현재 인구는 FI 27만, CE 17만명, PI 3만명으로 총 약 50여만 정도이다. 이 수치는 국별 전체인구에 대비할 때 대단한 규모는 아니다. CE의 경우, 유동 인구를 포함하면 약 20 만명 정도이며 이중 25,000여명의 아시아계가 거주하고 있다. 이중 중국인 13,000명, 아랍계 10,000명, 우리나라 교민 800명, 일본인 500명 순이다.

삼국국경지역의 경제활동의 중심은 상업과 관광업이다. 상업활동은 CE와 FI 간의 거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주변 국경도시까지를 포함하여 이 지역의 거래량은 정상거래와 밀거래는 합하여 연간 최소 40억 최대 1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2)]

세 도시간의 이동과 교류는 주로 국경의 교량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FI와 CE간에는 길이 500미터의 '우정의 다리'가 있고 탄크레도 네베스(Tancredo Neves) 다리는 FI와 PI를 연결하여 삼국국경 지역의 순환을 완성시킨다. 우정의 다리는 아침 저녁 출퇴근시간에 자동차와 인파로 장사진을 이루며 이 다리를 건너 평일엔 4만명, 주말엔 6만명이 브라질과 파라과이를 왕래한다. 파라과이와 아르헨티나간에는 아직 교량이 건설되어 있지 않아 파라나강을 횡단하는 수로로 이용하거나 브라질을 경유하여 교류가 이루어진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을 잇는 국경 역시 통행은 자유스러우며 일 평균 4천명(월 12만) 정도가 통행한다.(CNN 2003/11/24) 세 도시간 이동에서 장애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국경교는 항상 열려 있고 세관은 24시간 근무한다. 단돈 몇 백원이면 국경을

2) 참고로 파라과이의 국민총생산은 68억 달러(2001년), 54억 달러(2002년)를 기록하였다.

넘나드는 버스를 수시로 탈 수 있다.

이 지역의 물적교류는 기본적으로 삼국간에 존재하는 가격의 차이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 상거래는 주로 콤프리스타(Compristas, 소상인이란 의미) 또는 사코레이로(Sacolerios, 국경 다리를 건너는 짐꾼들을 의미)라고 하는 브라질 상인들이 CE에서 물건을 구입하여 여기에 이윤을 더하여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재판매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하루에도 5-6번씩 우정의 다리를 넘너들면서 장사를 하는데 평균 이익은 최고 30% 정도라고 한다.(César Bartolomé: 61) 국경도시간의 활발한 거래로 CE 세관은 파라과이 전체 세관 수입의 60%, 물동량은 국가전체예산의 30% 정도를 차지하나 관세 수입의 30% 정도만이 국고로 가는 것으로 추산될 정도로 부정부패가 심하다. CE 는 비록 관광지는 아니지만 물건을 사기 위해 들어오는 방문객과 관광객으로 호텔업도 성해 약 천개 정도의 객실이 있다. CE는 파라과이 전체 경제활동의 20%, 수출의 60%를 담당하는 파라과이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를 가진 곳이다. 90년대 중반 호황기에는 연간 9백만이 이 도시를 방문하였고 역외에서 물건을 구입하여 메르코수르 지역에 재판매하는 중계무역지로 호황을 맞기도 했다.(BBC) CE가 의류나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브라질 소비자들과 이과수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면 반면 PI는 장기적으로 자유무역지대를 건설하면서 현재는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카지노와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삼국국경 지역은 인종적 다양성으로 두드러진다. 특히 아랍계 이민자가 라틴아메리카에서 상 파울루 다음으로 가장 많은 지역이다. 아랍인들의 이주는 약 50년전부터 시작되었다. 1980년경 파라과이 스트로에스네르(Stroessner) 정부가 중동이민 정책을 펴자 팔레스타인과 레바논 이민자들이 이곳으로 왔다. 이들은 주로 더 나은 경제적 기회를 찾아 이민을 온 자들로 생활력이 강하고 근면하였다. 현재 이들의 다수는 CE 에 가게를 가지고 FI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이 FI에서 사는 것은 생활 여건이 양호하고 파라과이나 아르헨티나보다 아랍계 이민자들에게

더 우호적인 사회 분위기 때문이다. 브라질 정부의 수민 정책으로 현재 브라질에는 총 1.300 만명의 아랍계인구가 있다. 합법적으로 브라질에 입국한 아랍계 이민자들은 외국인 등록을 하고 체류증을 받게 되는데 이로서 브라질에서 생활하는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삼국국경지역의 아랍계중 상당수는 브라질에서 이주한 자들이다. 다른 민족들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동포들에게 보호를 약속하고 돈을 뜯는 아랍 마피아는 없다. 왜냐면 이들간 유대감과 일체감은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CE.에 정착한 시리아-레바논계 중 60%가 수니파(전통파, 관습파, 온건파)이고 35%가 Chiitas(근본주의자들)이다.(El Terrorismo Global y la Triple Frontera)

PI에는 중동계는 거의 없으며 FI와 CE의 아랍계는 약 15.000-30.000 추산되는데 이들 중 다수는 레바논과 시리아 출신이다. CE 에는 약 2-3천명 정도의 아랍계 이민자가 있으나 FI에 살면서 이곳에서 장사를 하는 숫자를 포함한다면 약 1만명 이상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주로 상업에 종사하는데 성실하고 장사수단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CE 시내 한 복판에 '선지자 무하마드' 사원이 있고 FI에는 '후세인' 사원과 '이슬람센터' 사원이 있고 각 도시에 한명식의 이만(imam, 회교 사원의 예배지도자)이 있어 신앙을 지도하고 있다. 이외에도 삼국국경지역에는 크로아시아인과 독일-러시아-캐나다 출신의 메노파 교도들이 인근에서 농업에 종사하며 파라과이 내륙의 마카(maka) 원주민들도 이곳으로 이주해 생활하고 있다.

세 도시간 이주와 이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 국가간 인구이동의 개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국 가	역내 이출민			역내 이입민		
	70	80	90	70	80	90
아르헨티나	64000	90000	100.000	337000	411000	418000
파라과이	252000	278000	272000	62000	143000	158000
우루과이	73000	133000	159000	35000	33000	41000
브라질	97000	152000	155000	51000	65000	67000
계 (메르코수르)	485000	654000	685000	485000	654000	685000

출처: Rosana Baeninger, La migración internacional de los brasileños: características y tendencias, Población y desarrollo, CEPAL, 2002

표를 보면 메르코 수르 국가간 인구이동은 꾸준히 증가해왔음을 알 수 있다. 통계를 보면 아르헨티나는 전통적으로 주변국으로부터 많은 이민을 받아들이는 나라임을 알 수 있고 반대로 브라질은 많은 이민자를 보내는 국가이며 파라과이 역시 이입민보다 이출민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르헨티나로 이민 온 브라질사람들은 80년에는 농부가 다수였으나(56%), 91년에는 서비스업과 단순노동 종사자(54%)가 많았다. 반면 브라질의 아르헨티나 이민자는 80년에는 기술자, 경영자, 수공예업자 순이었으나 91년에는 기술자, 경영자, 상인이 주류가 되었다. 한편 파라과이의 브라질 이민자는 80년에는 농부와 수공업자가 많았고 이는 92년에도 큰 변화가 없었다. 반면 브라질의 파라과이 이민자들은 80년 농부-수공업자순으로 많았으나 92년 통계에서는 수공업자-상업 순으로 변하였다.(Baeninger: 53) 메르코 수르 지역의 국가간 이민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이전에는 농업 등의 단순 노동자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상인이나 기술자 등의 이주가 많아짐을 알 수 있다.

CE와 FI 간의 이주는 브라질의 파라과이 인접 국경지역 개발과 연관이 있는데 이는 1930년대 서진(西進)식민화정책(marcha hacia el oeste)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정부와 토지회사가 결탁하여 불법 투기를 성행시켜 큰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국경지역은 폭력이 난무하

는 곳이었고 사회적으로 비천한 곳으로 취급되었다. 따라서 60년대부터는 브라질 사람들은 국경너머 파라과이 지역으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반면 파라과이의 (농업)국경 정책은 외국계 농목기업에게 토지를 판매하고 일본, 미국, 브라질계 농업이민을 받아들이는데서 시작되었다. 브라질 사람들은 당시 파라과이 군사정부로부터 토지, 물가, 융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70년대 말부터 상황이 달라졌다. 브라질사람들에게 임대되었던 땅들은 다시 거대농업기업에 팔렸고 이들은 거기서 품을 파는 농업노동자가 되어야 했다. 이후 높은 인구성장과 교통과 소통의 지역인 삼국국경 지역은 관광업과 밀수, 마약거래가 혼재된 지역이 되었다. 이 곳의 이러한 혼란스런 사회적 복잡성을 'brasiguayos' 라고 말이 잘 대변해준다. 이들은 파라과이 영토에 들어온 외국인으로, 그러나 법적으로 브라질 국적 또는 이민자들이다. 이들은 부족한 교육과 보건 서비스, 토지소유권 문제, 밀수, 폭력은 brasiguayos 의 삶의 조건들을 설명한다. 물론 이러한 어려움들은 브라질 사람이나 파라과이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Rodríguez Vignoli: 24)

브라질과 아르헨 국경은 기본적으로 브라질사람들이 아르헨티나로 가는 이동의 속성을 보이는데 하나는 농민들이 미시오네스주로 이주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업의 노동자나 관리자가 부에노스아이레스지역으로 입국하는 것이 있다. 즉 하나는 농촌행이고 하나는 도시행이다. 초기 브라질 이민자들은 도시에 정착했으나 70년대 이후 미시오네스주로의 이주가 많아졌고 현재는 아르헨거주 브라질인의 절반정도가 미시오네스주에 살고 있고 1/3 정도가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살고 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이주는 메르코수르 결성이후 늘어났는데 94년 이후 브라질 기업의 기술자, 관리자, 전문가들의 부에노스 아이레스 거주가 늘었다.(Rodríguez Vignoli: 24)

V. 역설적 역동력

국제적인 관광도시인 PI와 FI의 치안은 전반적으로 괜찮은 편이다.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 있고 여기에 세관이나 정보기관의 인원이 있으며 관광객을 위해 사설경비 서비스까지 충분한 편이다. 그러나 관광객이 증가하고 도시 규모가 커지면서 FI에서는 가끔 외국인에 대한 절도와 강도 사건이 발생하기도 한다. CE는 경찰력이 부족하여 살인, 도둑, 강도 등 조직범죄로 치안이 불안한 편이며 특히 주변국 도시와의 밀수와 해적품이 문제가 되고 있다. CE는 'informal' 또는 'segunda linea'라고 하는 중고품을 포함하여 위조품과 모조품 거래가 빈번하며 거리에는 '메시테로스'(Mesiteros)라고 행상이 장신구나 해적판 음반들을 판매하여 도시의 미관을 해친다.

밀수의 유형은 다양하다. 국경을 이루는 파라나 강 저편에서 담배를 비닐 봉지에 넣어 던져서 이것을 브라질 쪽에서 받아서 되파는 것부터 밀수 콘테이너를 통째로 사고 파는 것까지 다양하다. 밀수와 부정부패는 한 몸이다. 때때로 브라질 정부가 '벼락' 작전을 펼치기도 한다. 밀수범들과 연계되어있을 지역 경찰을 배제하고 다른 지방의 경찰을 차출하여 밀수범 검거작전을 벌이기도 하나 역부족이다. 브라질 국경 경비 경찰은 밀수품을 싣은 버스 1대당 250-500 헤알을(2004. 1 달러당 2.8 헤알) 받고 통과시켜주고 이로서 매일 수천대의 차량이 우정의 다리를 건너 브라질 영토로 밀수품을 밀어 넣는다. 이것이 파라과이 경제의 주요한 수입원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검사를 받지 않고 국경을 통과할 수 있는 차량번호를 미리 넘겨주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BBC CNN 2003/12/09)

밀수의 품목도 다양하다. 주종은 가전제품이고 이외에 통신제품, 운동화, 음료수, 장남감, 시계, 섬유, 향수, 담배등이 주로 밀거래된다. CD나 비디오 등의 불법복제도 성행한다. 마약의 경우, 마리화나는 CE에서 브라질로 몰래 유입되어 상 파울루 등 대도시로 퍼져 나간다. CE로의

밀수 경로는 아시아 제품은 FI를 통해 들어오기도 하고 미국(마이애미)에서 오는 것들은 산토스, 몬테비데오, 부에노스아이레스 항구 등을 통해 들어온다. 자동차 밀매 역시 성행한다. 아르헨티나에서 도난된 차량이 매년 6.000대 정도 이 지역으로 들어오는데 다수는 볼리비아와 파라과이로 재밀매된다. 5만 달러하는 벤스는 이곳에서 만 달러면 살수 있고 4만 달러하는 BMW는 7.000달러 정도면 충분하다고 한다. 밀수출의 경로는 거의 밀수입의 경로의 반대이다. 밀수에 비행기가 이용되기도 한다. 브라질 당국은 브라질국경인접 파라과이에 100여개 정도의 사설 비행장이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배를 이용한 밀수도 성하다. 파라나강을 통해 CE에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로 많은 물건들이 거래된다. CE에서는 불법체류자를 포함하여 약 3만명 정도의 중국계이민이 있는데 이들 중 일부는 아시아와의 밀수에 관련이 있으며 중국계 마피아도 진출해 있다.(César Bartolomé: 64-65) 특히 밀수의 주 경로인 브라질과 파라과이 간에는 매일 수 만 명과 수 천 대의 차량이 왕래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엄밀한 국경경비는 이루어질 수 없다. 단지 운이 나쁜 10%정도만이 검사대상이 될 뿐이다. 불충분한 검문은 밀수를 성하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삼국국경지역은 돈세탁이 용이한 곳이다. 정확한 액수는 알 수 없지만 CE의 경우, 은행거래의 절반정도가 여기에 해당할 것으로 짐작된다. 불법 송금도 많다. FI의 환전소나 은행에서 'CC-5'라고 하는 일종의 해외거주자계좌에 입금(송금)하면 파라과이의 은행으로 보내지게 한다. 은행계좌는 대개 위조서류를 사용하여 차명이나 가명으로 개설하는 경우가 많다.(César Bartolomé: 67) 또 2002년에는 브라질 연방경찰은 CE와 FI 의 은행들이 카리브 은행을 통해 외부로 밀수, 마약거래, 무기, 담배, 가전, 불법복제프로그램, 도난차량, 돈세탁을 목적으로 송금한 것을 적발하기도 했다.(La Nación)

국경도시간 상거래가 활성화되고, 지역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관광객을 상대하는 유흥업소가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그림자중의 하나는 성관

광업의 출현이다. 특히 미성년에 대한 강제노동중 이들에 대한 성매매가 늘어나고 있으며 심지어 8세미만의 어린이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 중 다수는 학교에 다니지 못하며 강제노동과 상업적 성행위에 종사하고 있다. 현재 삼국국경도시에는 약 3만5천명이 미성년자들이 성적으로 착취당하고 있다. 삼국정부는 강제노동과 성착취를 위한 아동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가족들을 대상으로 계몽교육을 하고 미성년들을 대상으로는 자활교육을 계획하고 있다.(아르헨티나 아동노동근절 위원회) 배금사상이 확산되는 것도 이 지역의 골칫거리 중의 하나다. 특히 CE의 젊은이들 사이에는 "돈은 곧 신이다"라는 생각이 널리 퍼져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삼국국경에 대한 가장 큰 논란은 테러와의 유관성여부에 관한 것이다. 특히 미국정부는 911 테러이후 어떤 물증도 발견하지 못했지만 이 지역이 테러와 연관이 있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다.

기실 삼국국경에서 중동과 연계된 테러리스트의 존재에 대한 언급은 198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브라질 정보기관은 아랍계 이민자들이 중동테러조직의 활동자금을 모으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90년대 들어서는 테러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아랍계 이민이 FI와 우루과이와의 국경 도시인 Chui에 정착하였고 그래서 이 두 도시를 이들의 '기숙사'라고 칭하기도 했다.(César Bartolomé: 67)

또 1992년과 1994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있었던 유태인에 대한 테러 공격도 이곳의 아랍인들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측되기도 했다. 1992년 3월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차량 폭탄이 터져 26명이 죽고 100여명이 다치는 테러가 발생하였다. 또 1994년 7월 18일 이스라엘 교민회관 AMIA(Asociación de Mutuales Israelitas Argentinas, 유태인 공동체 협회) 7층 건물이 폭탄테러로 폭발해서 86명이 죽고 200명 이상 부상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특히 94년 AMIA 차량 자폭 사건의 범인은 레바논 출신의 헤즈볼라 요인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는 삼국국경을 통

해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LA NACION 2002/12/17, 2000/7/19, 2000/9/28, 2003/8/21)

이스라엘 대사관과 유태인에 대한 테러 이후 삼국국경지역과 아랍인들의 테러 연관 가능성이 또 다시 언급된 것은 911테러때였다. 미국 국무부는 2001년 4월 세계테러보고서를 발간하였는데 여기서 "삼중국경지역은 여전히 라틴아메리카에서 회교과격주의자들의 관심지역이다."라고 명시한 바 있다.[3](CNN 2001/11/13) 911테러 이후 미국정부는 이 지역을 헤즈볼라나 하마스 같은 이슬람 과격 테러 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주목하고 향후 테러가 발생될 수 있는 지역으로 간주하고 조사했으나 물증은 발견하지 못했다. 미국 CIA가 파라과이 경찰을 지원하여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체포하여 조사했지만 이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BBC 2002/9/3,5-6)

이처럼 이 지역이 이슬람테러조직과 연계성이 제기되는 것은 이 지역이 라틴아메리카에서 드물게 회교도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며 이들이 나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삼중국경의 아랍계 대다수는 FI에 살고 있는데 약 1만 2천명 정도로 추산된다. 그러나 불법이민자를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 특이한 것은 이들의 90%가 레바논 출신이며 이들의 다수는 과격테러집단인 헤즈볼라의 근거지인 베카(Bekaa) 계곡 출신들이 많다는 점이다. 또 미국의 대테러전문가들은 삼국국경이 중동에서 축출된 테러리스트들의 은신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데 이유는 이 지역이 이슬람 인구가 많기 때문에 테러리스트들이 숨어 지내기에 유리하고 실제로 이들과 자연스레 섞여 사라져 버리기 '쉬운' 곳이기 때문이다.(LA NACION 2002/12/18)

삼중국경지역의 불법과 부정이 테러리즘과 유관할 수 밖에 없다는 시

3)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을 때 이 지역의 아랍계 상인들은 혹시 자신들에게 어떤 화가 미칠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였다. 실제로 2001년 911 테러 이후 삼국 국경의 아랍계 소상인의 40-50%정도가 사웅 파울루로 이주하였다는 보도도 있었다.(BBC 2002/9/5)

각도 있다. 불법거래와 조직범죄는 테러리스트들이 자신들의 활동을 은폐하기에 좋은 토양이며, 테러에 사용할 무기와 장비를 용이하게 구할 수 있게 하며, 범죄자들을 테러에 쉽게 동원할 수 있고,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반유태인 감정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César Bartolomé: 68) 실제로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로 비자나 여권의 불법 발급이 이루어지며 이는 삼국으로의 밀입국이나 도피에 이용되기도 한다. 이런 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현재 이과수 국경 삼국은 테러, 마약, 돈세탁, 무기밀매 등에 대해 삼국위원회를 구성해 협의하고 있다.

부정부패는 불법을 도와준다. 그리고 불법으로 조성된 돈은 다시 부정부패를 조장한다. 이러한 악순환은 어떤 면에서 삼국국경의 어두운 동력일지도 모른다.

VI. 결 어

이 도시들이 공동체적 관계를 가지고 있음은 매일의 일상에서 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나 사태를 통해 확인되기도 한다. 911 테러로 국경지역에 대한, 특히 CE와 FI의 아랍인에 대한 검거와 체포 열풍이 불자 CE에 물건을 사기 위해 다리를 건너는 브라질 상인들의 행렬은 뚝 끊겠고 이과수 폭포의 관광객도 급감하였다. FI와 CE의 호텔 예약은 911 테러 이후 90%가 취소되었다.

2001년 11월 삼국국경의 도시 사람들 6만 5천명이 FI에 모여 '국경없는 평화'(paz sin frontera) 행사를 거행하였다. 이 행사는 삼국국경은 테러와는 무관하며 아랍인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이곳에서는 출신지나 인종을 막론하고 평화적이고 생산적인 공존을 추구하고 있음을 외부에 알리는 것이었다.(BBC 2002/9/3, 5-6) 또 삼국국경의 밀수, 마약, 테러와 같은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하기 위해 지역의 문화와 안전함을 보여주기 위해 정기적으로 국제연극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2003년 제 1

회 연극제가 성공적으로 열렸다. 아르헨티나 연극은 FI에서, 브라질 연극은 CE에서, 파라과이 연극은 PI에서 교차 공연하는 식으로 진행되어 상호이해 증진과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을 꾀하고 있다.(La Nación 2003/6/26)

삼국이 인접하고 있다는 것은 이 지역의 공기와 물도 공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세 도시를 흐르는 파라나강의 수력자원 이용은 항상 공동의 문제로 간주된다. 아직 생태적으로 오염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환경문제에 대한 충돌 또는 이견은 크지 않지만 향후 국경 도시간 개발을 둘러싼 이견이 발생한 소지도 있다. 2003년 아시아콩 노상균(주로 동남아에서 콩류에 질병을 일으켜 수확을 감소시키는 병)이 파라과이와 브라질에서 발견되어서 PI에서 검문과 검역이 강화되었던 일은 이 지역은 질병까지도 공유하는 관계임을 대변하는 것이었다(La Nación 2003/6/21)

삼국국경지역은 삼국간 회담이 자주 열리는 장소이기도 하다. 국제적인 관광지인 관계로 회의 개최에 적합한 시설이나 설비을 갖추고 있는 면도 있지만 지리적으로도 삼국의 중앙에서 접근하기 유리한 중립적인 위치이기도 하다. 따라서 삼국간 회담은 물론이고 남미지역 국가간 국제회의도 빈번하게 열리는 '열려진 공간'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곳이다.

국가적인 중대사는 물론이고 때론 사소한 일상까지도 이과수의 세 도시는 공유한다. 브라질은 대통령선거전날 모든 상점에서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다. 2002년 대선을 앞두고도 금주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수많은 FI의 젊은이들이 탄크레도 네베스 다리를 건너 PI에 와서 밤새 룰라의 승리를 기원하는 파티를 '즐겨' 아르헨티나 경찰을 곤혹스럽게 만들기도 했다.(La Nación 2002/10/28)

폭포와 시장이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이과수 국경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과수 폭포를 관광하기 위해 이 지역에 오며 이 폭포를 공유하는 PI와 FI는 쌍둥이 도시로 기능한다. 모든 관광 코스들도 이 두 도시를 하나로 묶어 만들어져 있다. 폭포를 둘러본

다음 코스는 필경 CE로의 쇼핑이다. 주변 자역에 쇼핑 몰 형태의 현대적 쇼핑 센타가 건설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장 도시 CE는 싼 가격으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 역시 폭포 관광객들을 불러들이는 중요한 유인 기제이다. 쇼핑만을 위해 이곳에 오는 사람은 없으며 마찬가지로 CE을 들리지 않고 이과수만 둘러보는 사람도 거의 없다. 여기에 불법과 부정의 검은 관계마저도 세 도시를 함께 묶고 있으니 삼중국경 세 도시의 공존은 필연적이고 상호적인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참 고 문 헌

김홍철, 국경론, 민음사, 1997.

민만식 외, 중남미사, 민음사, 1993.

이전, 라틴아메리카의 지리, 민음사. 1994

Baeninger, Rosana, La migración internacional de los brasileños: características y tendencias, Población y desarrollo, CEPAL, 2002.

César Bartolomé, Mariano, "La Triple Frontera: Principal Foco de Inseguridad en el Cono Sur Americano", Military Review, Julio-Agosto 2002

Rodríguez Collazo, Angel & Josefa Santiago Caraballo(colaboradores), América Latina Tierra de Contrastes, Puerto Rico, Santillana, 1992.

Rodríguez Vignoli, Jorge, Distribución territorial de la Pobalación de América Latina y el Caribe : tendencias, interpretaciones y desafíos para la políticas públicas, CEPAL, Santiago de Chile, 2002.

BBC(http://news.bbc.co.uk/hi/spanish/latin_america/default.stm)

CNN(http://www.cnnenespanol.com/americas)

La Nación(http://www.lanacion.com.ar)

미시오네스 주정부(http://www.misiones.gov.ar/IPEC/index.htm)

주파라과이 한국대사관(http://www.mofat.go.kr/paraguay)

El Terrorimso Global y Triple Frontera
(http://www.seguridadydefensa.com/
editorialcompleta2.asp?id=8020&tn=nota)

아르헨티나 아동노동근절위원회(Comisión Nacional para la Erradicación del Trabajo Infantil, http://www.conaeti.gov.ar/difusion/files/movilizacion.htm) Britannica 백과사전 2000.